부호장공파종회 임원회의

△부호장공파종회 임원회의에서 권병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 회장. 권병균) 임원회의가 9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등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호장공파종회 권중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700여 년만에 처음 치르는 부호장공파의 파조(派祖) 향사(享祀)에 관하여 1시간 30분 동안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파조 향사는 매년 양력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정일(定日)로 결정했으며 또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향사를 치르기 위하여 유사(有司) 4명을 선임하여 향사에 필요한 모든 제수품을준비하고 부녀회는 점심용 비빔밥을 각각 분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제수용 비용은 수부곡과 성곡 등 8개 문중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시내 송현동 '묵향'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오는 10월 11일 향사때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지난 2년 동안 향사에 필요한 모든 제수용품 구입을 추진해왔던 회장단은 전북 남원까지 내려가서 제상과 제기를 구입하고 관복(冠服). 병풍 등 다른 제품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다. 〈보도부장 권영건〉

正朝公派 경로잔치 開催

△정조공파경로잔치모습(원내는 권인탑 정조공파회장)

안동권씨정조공파(회장 권인탑)는 9월 16일 오전 11시 안동시 송현동 <묵향> 2층에서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재주 안동종친고문, 권경웅대종원부총재, 권병균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중덕 시중공파종회장,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기만 권오탁 권기룡 역대 정조공파 회장, 권기창 경도대학 교수, 권윤성 중윤공파종회 부회장,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남안동농협조합장을 비롯하여 65세 이상인 정조공파종 노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망배, 상읍례(相揖禮)의 순으로 이어졌는데 권인탑 회장이 참석한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권인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비가 흡족하게 내려 풍년이 들어 다행이라고 서두를 꺼낸 뒤 이 자리는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끼리 모인 뜻 깊은 자리라고 하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권문(權門)의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결과 안동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삼선인 영양군수 그리고 안동시의원 4명이 당선되었다며 흐뭇하다고 하였다.

또 후손들에게 평소 보학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460여 명에게 총 1억 3천 8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려초 중기 권정평(權正平)의 묘지명(墓誌銘)이 발견됨에 따라 당시 향리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것과 가족상황까지 알 수 있는 등 국보급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이 묘지명을 권위 있는 학자들을 통해 조사,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오늘 잔치는 소찬이지만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는 축사에서 먼저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권인탑회장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경로잔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였다. 정조공파에서는 오늘과 같은 경로잔치와 장학금 전달, 보학교육, 기타 다양한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늘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고 노인의 행복은 다리가 튼튼하여 걸을 수 있고, 친구가 있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하며 늘 움직이며 건강관리를 잘 하여 노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족의(族誼)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창한 초가을 날씨로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자 주최 측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오뚜기 고급유 선물세트> 1통 씩 선물로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검교공파 서울 종친회 8월 월례회

△검교공파서울종친회 8월 월례회 모습.

검교공파서울종친회(회장 권오운)는 지난 8월 25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산들해」한정식 식당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권오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바쁘신 중에도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많이 참석한 파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는 10월 13일 파조 추향제는 어느해보다 특별하게 1박2일(10월12~13일)로 안동 태사묘, 시조묘소 참배, 하회마을 관광, 상주 파조 추향제를 올린 후 제천 세명대학교 설립자 권영우 이사장 묘소 참배와 기념관을 들려본 후 귀경하는 계획에 대한 상세한 행사계획 설명과 부부동반 참석을 독려하였다.

파조추향제 참석 회원들에게 증정하는 기념타올 비용 30만원을 권태욱 부회장이, 웃음부자 수필집(책값 120 만원)은 권오운 회장이, 권용태 감사가 10만원, 권영주 부회장이 파조 추향제에 20만원을 협찬하여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으며 본회 발전과 관련된 대·소사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권오운 회장〉

陵洞古宅音樂會 開催

능 동 고 택 음 악 회 개 최

△능곡회 주관으로 9월 21일 저녁에 능동재사에서 고택음악제가 개최되었다. (원내 좌 : 권순창 능곡회장의 인사, 우 : 권영세 안동시상의 축사

△능곡회원들

안동시가 주최하고 능곡회(회장 권순창)가 주관하며 안동시, 안동권씨대종원, 안동종친회, 청장년회가 후원하는 <제3회 능동고택 음악회>가 2014년 9월 21일 오후 6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재사 추원루(追遠樓) 앞 잔디밭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음악회를 개최하기 전에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영세 안동시장,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순창 능곡회장, 능곡회회원 등 20여 명이 시조묘소에 올라가 고유(告由)를 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혁철 능우회장, 권순창 능곡회장,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권광택, 권남희 안동시의원, 능우회 및 능곡회 회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뿌리깊은 고택에서 들려오는 능골의 음악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식전행사로 50~60대로 결성된 봉사단체인 '두들림' 소속 남녀 5명이 북을 신나게 두드리면서 난타공연을 하였다.

이날 안동권씨 며느리이며 MBC 진짜사나이 군악의장페스티벌 진행자이며 CJ헬로비전 리더의 품격 진행을 맡고 있는 프리랜서 심정옥 사회자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멋있고 깔끔하게 진행을 하였다.

전 능곡회장 권영훈씨가 내빈소개를, 권순창 능곡회장이 인사말을, 권영세 안동시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권혁록 문화해설사는 능동재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였다.

능동재사(陵洞齋舍)는 중요민속자료 제183호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은 고려 삼태사 중의 한 사람이며 안동권씨 시조인 권행(權幸)의 묘제(墓祭)를 위한 재사(齋舍)다. 조선 효종 4년(1653)에 처음지어 마루, 방, 곳간 등 16칸(間)을 건립하였고 그 후 숙종 9년(1683) 관찰사 시경(是經)이 누각 7칸을 추건(追建)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불행하게도 두 번의 큰 화재로 당시 70여 칸의 건물 중 임사청(任事廳). 전사청(典事廳) 등 몇 칸만 남기고 모두 불에 타 없어진 것을 건양(建陽) 1년(1896)에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집은 구조적으로 주목할 만한 건축물은 없으나 재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의 건물로 제례행사(祭禮行事)의 성대한 규모를 짐작케 한다고 설명하였다.

제일 먼저 전국 국악대전에서 금상을 차지한바 있는 김남이씨가 대금을, 김천시립국악단의 단원인 신혜원씨가 해금으로 '인연' 등 2곡을 각각 연주했다. 이어 전 능곡회장 권영국 등 3명이 찬조출연을 해서 색소폰으로 '안동역' '삼포로 가는 길' 2곡을 연주하고 앙코르곡으로 '찔레꽃'을 멋있게 연주했다.

곧이어 통기타가수 이미숙씨가 '꿈속의 사랑' '그러면 좋지 않겠나?'를 허스키 목소리로 부르자 관객이 앙코르(encore)를 청해 앙코르곡으로 '삐에로는 웃지 않네'를 기타로 연주면서 노래를 불렀다. 주최 측은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따라온 점을 감안해서 예년에 없었던 마술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국가대표 마술사 팀인 '오즈매직'의 양재혁 등 2명은 20여 분에 걸쳐서 '동전마술' 등 재미있는 여러 가지 마술로 재주를 보여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60~70대가 좋아하는 한국무용과 부채춤을 선보였는데 경주 현예술단 상임단원인 성민희씨가 마치 학이 날아가듯 '태평무'와 '부채춤'을 멋있게 추었다.

이어 보컬 앙상블 C. Classic 김은태 등 3명이 넘치는 힘으로 오페라 '아무도 잠들지 말라' 등 3곡과 앙코르송으로 '영일만 친구'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출연자인 초청가수 윤성씨는 '아름다운 강산' 그리고 앙코르송과 함께 4곡을 연달아 관객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신나는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작년 음악회에는 안동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들을 많이 초청했었으나 올해는 여러 도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들을 초청하였다. 초가을 밤 날씨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고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능골로 울려 퍼지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2시간 30분 동안 흥분의 도가니로 흠뻑 젖어 들게 하였다. 주최 측은 사전 준비한 소형담요와 따듯한 물, 커피, 녹차, 떡, 그리고 음료수를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으며 행사가 끝나자 능곡회원들은 단체로 기념촬영 후 안동종친회관 1층 '양반밥상'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 좌상 : 가수 이미숙 일행 , 우상 : 성민희의 부채춤, 좌하 : 권영구외 색소폰 연주 , 우하 : 관객들

〈보도부장 권영건〉

雲谷書院誌

(운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2. 운곡서원 연혁

그리고 이튿날 10월 1일에는 봉안례(奉安禮)를 행하였다. 봉안례는 위판을 사당에 모시는 향례이다. 이때에 봉안을 하였으므로 추원사가 창건된 것은 정조 10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조 9년 을사년(1785)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병오년(1786)으로 하는 것은 이때에는 봉안례만 행했고 상향례(常享禮)를 시작한 것이 이듬해 정조 10년이기 때문인 듯하다. 참판 이헌경(李獻慶)이 지은 봉안축문에서는 '방역(邦域)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니 화산(花山)의 곁이고 제사를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성경(誠敬)으로 공덕에 보답하는데 모두가 이르기를 "공의 영혼은 물과 같이 양양(洋洋)하고 정의(情意)는 널리 연이어 서리는 바이거늘 어찌 바로 식읍인 안동에만 그치랴" 라고 하면서 우러러 종묘(宗廟)를 말한다면 반월성(半月城)이 그곳이요, 희공(嬉公)이 노(魯)나라에 식봉(食封)되었으되 실은 주(周)의 서울 호경(鎬京)을 돌보았거니와 용(龍)이 포석정(鮑石亭)에서 침잠되니 선릉(仙陵)에서 두견이 통곡했고 생전에 충분(忠憤)으로 기울고 엎어지는 것을 어질게 부축하시었으니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움이 연계되시어 반드시 달리고 날아오실 것인 즉 어찌 또한 그 옛 도읍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하므로 운곡에 자리를 점쳐 물어 이로써 헤아리고 도모하여 여기에 터를 닦아 건축하고 이에 단청을 도색하여 둥글게 빛나는 위용을 이루어 군자가 집으로 삼을 바가 되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권태사실기(權太師實記)' 등에는 이 이헌경(李獻慶)의 봉안축문 외에 번암 채제공이 지은 또 하나의 봉안축문이 실려 있다. 생각건대 번암에게서 이 봉안축문을 미리 받아두었는데 뒤에 죽림·귀봉 양공을 배향하는 의논이 결정되었으므로 그 말이 들어가지 않은 이 축문은 들 수가 없어서 판서 이헌경에게 다시 받아다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축문에서는 '오로지 이곳 옛 서울 경주는 바로 공의 유적(遺蹟)이니 후손이 와서 지나침에 매양 출척(怵惕)하는 마음을 품되 어언간 제향을 받들지 못하니 예에 혹 결함이 있을까 하였습니다. 즐거운 저 운곡의 언덕에 정령(精靈)의 신비한 구역은 산이 높은데 계곡이 있어 물이 밝으니 용(龍)이 보호하는 절경을 이루고 구름은 깃발이 되고 바람은 말이 되어 임하시는 상황이 마땅하고 훌륭하신지라 후손의 정성에 실로 다함과 끝이 없어 한 가지 소리로 사당을 세웠다'고 하였다.

安東權氏 樞密公·忠憲公 歲享祭 案內

京畿道 坡州市 津東面 下浦里山 177壇所에서 2014年 度 歲享祭를 奉行하오니
많은 派親 들의 參祭를 바랍니다.

日 時 : 2014년 10월 19일 (셋째 週 日曜日) 10시 30분
交 通 便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지하철 5호선 1,8번 출구 옆) 대기중인 한국관광버스 2대에 탑승(08시 30분 정각출발)
개인참제 : 개인별 참제 파친은 당일 09 : 30분까지 전진교 군 검문소에 도착 출입절차를 필하기 바람(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요망)
연 락 처 : 추밀공파 대종회 사무실(02-737 6423) 사무국장 : 011-9867-3177

2014년 10월 1일
安東權氏 樞密公派 大宗會 會長 權赫昇

僕射公派祖 諱 守洪 秋享 安內

晩秋之節에 派親 여러분들의 家內에 幸運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甲午年 派祖府君(諱 守洪) 秋享을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家族同伴하여 꼭 參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日 時 : 2014年 11月 23日 (陰曆 10月 2日) 日曜日 10 : 30 場 所 : 慶北 安東市 西後面 校理 松夜壇所(松坡齋舍)
交 通 : 안동터미널에서 풍산방향 2km(시내버스 11, 42, 44, 46, 72, 76) 서후(51,98)
서안동IC→시내쪽(5km) 송야교 사거리(좌회전)→서후방향 1km
남안동IC→송현 사거리 풍산방향 4km(왕손짜장 옆길 150m)
連 絡 處 : 慶北 安東市 太華洞 666-62(派宗會館) ☎(054)855-6986 派宗會長 : 010-5161- 4271 總務部長 : 010-3504-2083

2014年 10月 1日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長 權 啓 東